

일본 성마리아 대학원 개강기념식에서...

※ 여름호에 이어서 계속



조규상 명예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Ⅲ. 그리스도교 신앙

구약성서 첫 장에 하느님은 우주를 창조하고 맨 끝에 인간을 자기모상으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은 영(靈)이시다. 고로 하느님의 모상으로 라는 것은 인간에게도 불멸의 영을 주셨다는 것이다. 신은 인간에게 영(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자유로이 행동하는 의지,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정서)을 붙여주셨다. 우주를 창조한 신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인간에게 선악을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이 자유를 인간은 악용하여 죄를 범함으로써 하느님을 배반하였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느님은 사랑하는 인간을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결하신 성모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사랑의 길을 가르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시어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다.

그리스도 신자는 신, 망, 애의 삼덕을 서원한다.

信 _ 하느님은 진리의 근원이시므로 계시하신 진리 굳게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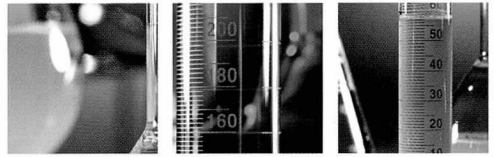
望 _ 하느님은 자비의 근원이시므로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愛 _ 하느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므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겠나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느님을 흠송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도 지식도 희생도 허사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며, 모든 것을 용서하며, 모든 것을 참음으로서 기쁨을 준다. 사랑이란 자기와 관계있는 자(부모, 자식, 남녀, 부부, 우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성경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 본 원고는 2006년 7월 15일 일본 성마리아 대학원 개강기념식에서 강연한 요지임



누가 그의 참 이웃이냐고 물은 데 대하여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에리고 가는 도중 강도를 만나 죽도록 얻어맞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사제나 교사들이 보고도 못 본체 하고 지나갔는데 이국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딱하게 생각하여 쓰러진 사람의 상처를 닦아주고 나귀에 태워 여관에 데려가 밤새 간호한 후 다음날 아침 떠날 때에 여관주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주고 간호를 부탁하며 모자란 것은 돌아올 때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났다. 이 중 누가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고 반문하셨다.

세상에는 버림받고 있는 장애인, 뇌성마비아, 행려자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을 돌보는 이는 적다. 인도의 성녀 테레사 수녀는 행려자의 어머니다. 그녀는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 보다도 더 큰 위안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것이요, 하느님과 사랑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차원을 넘는 것이다. 오늘날 중동정세를 포함한 국제간의 분규들은 사랑과 용서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Benedict 16세 교황께서는 교황이 되신 후 최초의 회칙으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Deus Caritas Est)를 발표하셨다(2005.12.25). 그 속에서 「사람은 항상 정의뿐만 아니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며 거기서 하느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죽을 운명이 언제 찾아오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 인간은 무엇이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오늘날의 사회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삶의 가치(Quality of Life)란 무엇인가. 이것은 그리스도교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모두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의 과제이다.

IV. 현대과학과 사상

20세기 이후, 과학과 기술의 약진적인 발전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주과학의 발달로 인한 위성계의 탐원, 전자공학의 발전에 의한 로봇의 출현, 정보통신과학의 일용화와 CD, IT에 의하여 세계정보와 문화는 언제 어디에서나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유전공학의 발달은 식량, 약품의 대량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복제동물의 출현은 인간 복제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정보과학의 발달로 이제 좁은 영역의 연구는 무의미하게 되어 세계와 관련 없이는 발전할 수 없게 되었다. 물질만능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장래에는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렇듯이 현대과학은 우리에게 대단한 혜택을 가져왔으나 반면 근본적인 사상의 변화도 가져왔다. 즉 윤리, 도덕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이다. 인간은 정서적인 것보다 관능적으로 되었다. 영원에 대한 희망보다도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게 되었다. 고통을 모르는 인간은 자기통제를 못하여 정신적 파탄에 빠지고 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 되었다. 그리하여 신은 죽었다고 말한다. 그 결과 가족제도의 붕괴, 세대 간의 갈등, 청소년 범죄, 인신매매, 각종 테러와 사기, 납치사건, 마약중독은 다반사가 되었고 인간존중이나 가치관도 없어졌다. 말할 나위도 없이 과학은 어떤 현상에 대한 객관적 해명으로 거기에는 사상이 없다. 과학은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가치가 부과



되는 것이지 그 자체에는 진리나 사상은 없다. 과학과 기술자체는 선악 어느 쪽에도 이용될 수 있다.

현대인은 효율적이며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 과학은 발명되면 곧 보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는 많은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특히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핵의 위협과 환경오염이다. 오늘날의 과학은 반성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에서 자선진료에 헌신한 Schweizer박사는 「현대는 사상에서 지식을 분리시켜 그 결과 자유로운 과학이 되었으나 반성하는 과학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오늘날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은 전쟁보다도 인간의 비판 없이 욕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고로 오늘의 과학은 과학자들 손에 의해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깊이 생각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V. 가톨릭대학의 교육이념

1990년 8월 15일 교 John Paul II세 교황께서는 가톨릭대학에 관한 회칙(Apostolic Constitution of the

Superme Pontiff on Catholic University)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가톨릭은 모든 대학과 더불어 진리를 탐구하며 전달하는 기쁨을 나눈다. 이것은 올바르게 행동하며 인류를 위하여 보다 훌륭한 봉사를 하기 위해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다. 가톨릭대학은 변화하는 현대의 다양하며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교 문화를 새로이 넓혀가는 희망을 가진다.

우리시대는 확실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나 또한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활동에 의하여 보다 많은 것이 약속되어 있다. 진리의 구원에 무조건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가톨릭의 영예요 책임이다. 인간의 생명은 문화에 의하여 보다 품위를 갖추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충만을 발견하며 모든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영양을 주며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다. 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현대세계에 있어 가톨릭대학의 과제는 중차대하여지고 있다. 과학의 발전은 거대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가져왔으나 또한 이보다도 많은 의미의 추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추궁으로 새로운 발전이 인간사회에 선을 위하여 활용되기를 바란다.

가톨릭대학은 자신의 탐구에 의하여 도덕적 영적 차원에 있어 인간(인격)의 정체성에 있어 과학과 기술을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톨릭대학의 목표는 「진리를 탐구하며 교수하고 활용을 국가사회와 국제공동체에 다양한 봉사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적 유산을 보호 증진하는」학문의 공동체이다. 세계가톨릭대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Catholic University)은 현재 182개 회원을 가지고 있고 지역과 나라에 따라 산하조직을 가지고 공동목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Ⅵ. 의학전문대학원에 바란다.

앞으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의학전문 대학원으로 학제가 바뀌어 새로운 교육이 시작된다. 예과 2년과 본과 4년의 구제에서 일반대학 4년과 전문대학원 4년인 8년제 대학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시점에 있어 지난날의 의과대학교육을 되돌아보며 가톨릭대학 이념에 부합된 새로운 대학원 교육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가톨릭의 의료사업은 치유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약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과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희생 정신없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의사의 업은 성직에 속한다. 그러나 과거 의사는 일반사람에게 돈 잘 벌고 평생이 보장된 직업으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오랜 세월 많은 공부를 해야 하며,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해야 하고, 남의 생명을 다룬다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하면서도 사회적 권위와 존경은 사라졌고 이를 보상할 만한 생활의 보상도 없어졌다. 이렇게 되기까지 예는 과거 의사의 책임도 크다. 새 시대의 의사는 사회의 존중을 받을 수 있기 위해 거듭나야 한다. 여기에는 의학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의 폐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이상을 가진 인간교육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주입식 교육으로 좋은 점수를 따야 의과대학에 들어 갈 수 있었다. 의과대학도 전문분야에 대한 주입식 교육으로 의사가 될 때까지 인생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문공부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졸업하면 힘되지 않고 인기 있고 돈 잘 버는 임상전문 과목에 몰려들고 있다. 인간이란 누구이며 생명이 왜 존중되어야 하며, 사랑하여야 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고 철학도 없이 어떻

게 남을 사랑하는 의료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윤리관을 지니지 못한 의사는 마치 교통규칙을 모르는 운전사와도 같이 위험천만이다.

가톨릭의과대학은 2009년도부터 시작하는 의학전문대학원 개학에 앞서 새 교육목표 설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목표를 준비하고 있다. 가톨릭의학전문대학원은 이념구현을 위해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에 있어 일반대학과 달라야 한다. 훌륭한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인성교육은 전 학년을 통해 일관성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의학 교육은 전 학년을 통하여 교과과정위원회에서 포괄적이며 계통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교육은 이론과 같이 실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환자들과 같이 사는 경험을 함으로서 그들의 고통과 처지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외국에 나가기 체험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함으로서 세계를 알게 된다. 새로운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이 정해지면 교수부터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육받기보다 교육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이란 술선수범할 때 그 효과를 발휘한다.

가톨릭의학전문대학원의 무한한 발전을 기구한다.

